

## 가짜뉴스의 역사가 말하는 진실

최은창 『가짜뉴스의 고고학』 저자 eunchang.choi@aya.yale.edu

역사를 돌아보면 대중을 속였던 선동, 날조, 속임수, 허위 정보의 범람은 현재의 가짜뉴스 현상과 다르지 않다. 허위 정보의 생산자는 효과적 전달을 위해 당대의 첨단미디어 기술을 사용했다. 인쇄술이 전파되기 시작한 16세기에는 팸플릿이, 1890년대엔 거리에서 팔리던 선정주의적 신문인 페니 프레스(penny press)가, 전파의 시대에는 무선 전신(telegraph)과 라디오가 그 수단이었다.



허위 정보의 생산자는 효과적 전달을 위해 당대의 첨단미디어 기술을 사용했다. 1890년대엔 거리에서 팔리던 선정주의적 신문인 페니 프레스가 그 수단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30년 넘게 진행된 냉전시대에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비밀리에 받은 지식인들과 미디어 단체들이 허위 정보전을 수행했다. 언론 자유와 비판의 목소리를 강압적으로 억눌렀던 군사 독재를 겪은 나라들에서는 맥락

이 왜곡된 정보가 공식 뉴스가 되어 일간지와 TV 뉴스 방송에서 흘러나왔다. 오늘날에는 모바일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와 포털 사이트가 허위 정보가 퍼져나가는 주요 채널로 자리 잡았다.

### 진실의 권모술수

거짓 소문의 조작, 허위 정보의 살포는 경제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고대사와 근대사를 막론하고 군사적 대결이나 정치적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허위 정보는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거나 여론을 장악하려는 술수로 사용되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 세력들은 지지층을 감정적으로 자극하여 선동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허위 정보의 살포를 일삼았다. 경쟁자들은 자기 얼굴을 감추고 무대의 뒤편에서 치열한 정보전을 펼쳤다. 역사적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면 허위 정보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조건과 메커니즘을 가늠할 수 있다.

안토니우스는 시저가 암살당하자 자신이 후계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저의 유언장에 따라 시저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로 지목되었다. 이로 인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갈등이 서서히 고조되었다. 시저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에게는 로마군을 이끄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고 부하들에게 인기가 높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18세의 소년에 불과했다.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가 서류를 위조하여 시저의 양자가 되었다고 공격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아이를 얻자 난잡한 이집트의 여왕과 불륜에 빠진 술꾼이 로마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안토니우스가 야만적이며 편협한 헬레니즘의 가치들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로마의 진정한 가치, 미덕, 정통성을 수호할 인물이야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아이를 얻자 난잡한 이집트의 여왕과 불륜에 빠진 술꾼이 로마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교묘한 날조, 맥락의 왜곡, 거짓 전언은 정치적 국면에서 대중의 분노와 증오심을 조장했다.

말로 바로 자신이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반복해서 전달했다. 로마에서 능수능란하게 허위 정보전을 펼쳤던 옥타비아누스는 대의명분에서 앞섰기 때문에 민심을 안토니우스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었다. 교묘한 날조, 맥락의 왜곡, 거짓 전언傳言은 정치적 국면에서 대중의 분노와 증오심을 조장했다.

식민지 미국과 영국 간에 전쟁이 벌어지자 평화조약의 협상을 위해 파리에 머물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독립을 위해 대담하게 가짜뉴스를 조작했다. 1782년 봄, 그는 파리의 변두리에서 수제 인쇄기를 돌려서 보스턴에서 발행되던 신문 <인디펜던트 크로니클(Independent Chronicle)>처럼 위조했다. 그는 영국군과 결탁한 인디언들이 벌인 끔찍한 잔학 행위를 신문에 구체적으로 적었다. 인디언들이 산모의 배를 가르고 29명의 유아를 꺼냈다는 이야기도 지어냈다.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한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반전 여론을 조성하고 영국군을 귀환시키려는 전쟁 프로파간다였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독립을 위해 대담하게 가짜뉴스를 조작했다.

## 페니 프레스의 인기

한편, 1890년대 뉴욕 거리에서 1페니에 팔리던 수많은 싸구려 신문들에 실린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대중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흥미로운 소재였다. 유명 작가 에드거 앨런 포 역시 신문에 날조된 이야기를 기고했다.



유명 작가 에드거 앨런 포 역시 신문에 날조된 이야기를 기고했다.

토요일판 <더 선(The Sun)> 신문에 날조된 이야기를 기고했던 포는 자신이 살아가던 19세기 중반을 혹스의 시대(epoch of the hoax)라고 즐겁게 이름 붙였다. 열기구를 타고 3일 만에 대서양을 건넌 남자를 인터뷰한 ‘풍선’ 이야기, 달 표면의 암석 지대를 뛰어다니는 생명체 ‘인간 박쥐’ 이야기가 인기를 끌었다. 신문 편집자는 날조된 이야기에 논픽션이라는 문구를 넣었지만 독자들이 그대로 믿을 가능성은 크지 않

았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신문을 읽으면서 포가 정말로 사실처럼 썼다면서 좋아했다.

가짜뉴스는 산업화로 인해 도시로 몰려든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했던 싸구려 신문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소문, 괴담, 가짜 인터뷰 등으로 채워진 페니 프레스는 식견 있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재라기보다 엔터테인먼트 상품 같았고 독자들을 소비자로 여겼다. 그 무렵 신문들의 속이기(faking)는 그리 나쁜 의미가 아니었다.

편집자들은 이야기를 근거도 없이 만들거나 읽기 편하게 윤색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을 뽑고, 부족한 정보의 빈틈을 채워 넣었다. 허황된 기사를 싣던 페니 프레스는 흥밋거리나 오락거리였지 여론 조작을 노린 수단으로는 사용되지는 않았다. 신문들은 독립적이었다. 또 정치 세력과 결탁해 정파적 뉴스를 쓰지도 않았다.

### 타이태닉호와 무선 전신

노골적으로 독자들을 속이려는 허위 정보가 대중을 두려움과 실망감 속으로 몰아넣은 사례들도 많다. 1911년 5월, 리버풀을 떠나 뉴욕으로 향하던 여객선 타이태닉호가 침몰한 이후에도 생존자를 찾는 뒤늦은 수색은 계속되었다. 이듬해 봄, 신문사들에 “타이태닉호의 승객들은 무사하다. 지금 헬리팩스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무선 전신이 갑자기 수신되었다. 1912년 4월 많은 신문사에서 무사 귀환을 알리는 헤드라인을 앞다퉈 올렸다. 실종자의 가족들은 환호하며 기뻐했지만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무선이 허위 정보였다는 점이 드러나자 유족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다. 재확인을 위해 무선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미 가라앉은 타이태닉호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 가짜 무선은 신문 역사상 가장 많은 헤드라인에 실린 가짜뉴스로 기록되었다.

타이태닉호를 사칭한 뻔뻔한 가짜 무선 이후에도 악의적 장난 무전은 빈번히 발생했다. 무선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선 전파에 이름표 따위는 없었다.

그 이후 많은 나라에서 주파수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도입했다. 사용권을 국유화한 다음에 대역대별로 특정한 용도의 주파수 사용에 허가를 주는 방식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1920년대 무선 전신에 의존했던 미국 내 뉴스통신사들은 뉴스거리를 모아 뿌려주는 뉴스 도매상이자 정보 플랫폼의 역할을 했다. 무선 전신을 갖춘 뉴스 정보 취합소는 조랑말을 이용하여 소식을 전달하던 속달우편을 대체했다. 월스트리트 주식의 증가, 야구 경기 스코어, 돼지고기 가격, 날씨가 지역 신문사들로 전송되었다.

그렇지만 뉴스통신사가 공급하던 뉴스들에는 부정확한 소문이나 오보도 상당했다. 속도 경쟁을 중요시했던 뉴스통신사가 사방에서 몰려드는 모든 뉴스거리와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뉴스 정보의 정확한 필터링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무선 전신은 뉴스를 모으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뉴스의 정확도와 퀄리티는 압박을 받았다. 실수에 의한 오보와 악의적으로 슬쩍 끼워 넣은 허위 정보의 필터링이 어려워지자 독자들은 혼란을 겪었고 저널리즘의 신뢰도는 타격을 입었다. 뉴스통신사들은 경쟁적으로 기사를 송고했기 때문에 허위 정보나 오류를 발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무엇이 거짓인지 밝혀지는 순간은 이미 신문이 판매된 이후였다.

그 무렵 허위 정보는 금전적 이익을 노렸다. 과열된 주식시장에서 시세 조작을 유도하는 미끼 정보가 걸러지지 않자 주식을 산 사람들은 허공에 돈을 날리고 분통을 터뜨렸다. 악의적 허위 정보와 뉴스 정보의 오류 때문에 항의를 받던 1920년대 뉴스통신사의 곤혹스러운 입장은 게이트키퍼 기능이 없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나 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입장과 비슷했다.



타이태닉호 침몰 관련 가짜 무선은 신문 역사상 가장 많은 헤드라인에 실린 가짜뉴스로 기록되었다.

## 허위 정보가 의도한 반응

허위 정보를 뜻하는 영어 단어 ‘disinformation’의 기원은 1959년 소련의 KGB

에 설치한 정보조정과(dezinformatsiya)에서 유래되었다. KGB는 전 세계 언론사에 에이즈가 미국이 만들어낸 질병이라는 가짜뉴스를 뿌렸다. ‘아프리카에서 에이즈가 확산된 이유는 미국 첩보 기관에 의해 수년 동안 실시된 세균학·화학 실험 때문’이라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작전의 명칭은 감염작전(Operation Infektion)이었다.

에이즈가 미국 군사시설 포트 데트릭에서 만들어진 생물학 무기라는 주장에는 조력자가 있었다.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MfS)는 러시아 출신의 생화학자 야코프 세갈(Jakob Segal)에게 접근했다.

과학자의 입을 빌려서 서방 언론의 관심을 끌겠다는 발상은 잘 먹혀들었다. 그가 작성한 52쪽짜리 「세갈 보고서(Segal Report)」는 ‘에이즈: 본성과 기원’은 생화학 관련한 전문용어들로 가득 차 있었기에 일반인이나 언론인이 그 허위성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런던의 한 타블로이드 신문에 세갈의 인터뷰가 실리자 스페인 잡지, 아르헨티나 일간지에도 게재되었고 미국 내 신문에도 실렸다. 음모론이 일단 국제적 뉴스 정보 유통의 네트워크에 들어가자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다. 소련의 국영 타스 통신(TASS)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에이즈 허위 정보 캠페인을 활발히 펼쳤다. 에이즈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던 아프리카인들은 에이즈 음모론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이는 백신 접종 등 공중보건 활동에 대한 불신으로 오늘날까지 작용하고 있다.

돌아보면 미디어 기술의 발전사는 허위 정보의 역사이기도 했다. 인쇄술, 라디오, 무선 전신, 인터넷 웹 브라우저, 소셜 미디어 앱, 모바일 인터넷의 발전에 힘입어 정보 전파력이 강력해지는 동안 허위 정보의 교묘한 수법도 놀라운 진화를 거듭했다. 일부 학자들은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고고한 저널리즘의 세계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불청객쯤으로 취급하고는 한다.

그러나 허위 정보는 인쇄시대나 저널리즘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정보 생태계의 오랜 주민이었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선동적 문구에 쉽게 이끌리고 상상력을 덧붙여 전달하는 사람들의 속성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완전한 사실만이 뉴스 정보로서 대중에게 전달되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다. 극단적 불신, 이성의 마비, 혐오감, 집단행동, 폭력의 합리화는 허위 정보가 의도한 반응이었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언제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그것은 허위 정보가 사람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거나 불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